

**Methylcellulose 결합제를 이용한 W 중합금의 사출성형
(Metal Injection Molding of W-Heavy Alloy Using Methylcellulose Binder)**

한양대학교 재료공학과 김대건*, 김영도, 문인형
국립기술품질원 이정근

1. 서론

텅스텐 중합금은 고밀도를 요하는 부품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단층촬영에 필요한 복잡한 형상의 X-선 장비에도 요구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텅스텐 중합금의 기계적 성질과 미세구조의 특성은 소결조건에 의한 공정특성으로 결정되고, 원하는 조성의 혼합분말을 액상소결하여 제조되는데 후속적인 가공 및 열처리 등을 통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한다. 따라서 텅스텐 중합금의 응용에 있어 복잡한 형상의 최종제품을 제조하는데 제한적이며 높은 제조단가와 대량생산에 문제가 있다. 이에 MIM 기술을 적용하여 복잡한 형상의 부품을 정밀하게 제조하고 더 나아가서 밀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본 실험에서는 열경화성 특징을 나타내는 수용성 결합제인 methylcellulose를 사용, 합금원소인 Fe를 염 상태로 결합제에 첨가하여 텅스텐 중합금의 MIM 제조공정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텅스텐 중합금 사출성형을 위해서 95wt.%W-3.5wt.%Ni-1.5wt.%Fe를 조성으로 결합제로는 열경화성 특성을 갖는 Methylcellulose를 이용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두 가지 사출방법을 택했는데, 조성을 모두 분말로 첨가하는 것과 철을 염으로써 용매에 용해시켜서 결합제에 첨가하는 것이다.

95wt.%W-3.5wt.%Ni-1.5wt.%Fe powder

W, Ni, Fe 분말과 분말 형태인 methylcellulose(19vol.%)를 62rpm으로 4시간동안 Turbula에서 혼합하였다. 이렇게 혼합된 분말을 중류수와 글리세롤, 붕산을 첨가하여 200rpm으로 1시간 동안 상온에서 자체 제작한 혼합기으로 혼합하였고, 50MPa의 압력으로 사출하여 몰드의 온도를 상온에서 130°C까지 연속적으로 승온하여 총 1시간 동안 유지하며 고화 및 건조시켰다. 탈지공정은 수소분위기에서 5°C/min와 10°C/min의 승온속도로 하여 DSC와 TGA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얻어진 methylcellulose의 분해 온도보다 약간 높은 400°C에서 1시간 유지하고 다시 승온하여 700°C에서 1시간 동안 유지한 후 로냉하였다. 이러한 탈지체는 액상소결하였는데, 수소분위기에서 1480°C에서 1시간동안 소결하였다.

95wt.%W-3.5wt.%Ni powder FeCl₂-4H₂O(1.5wt.%Fe)

W, Ni, 분말과 methylcellulose(19vol.%)는 앞선 실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예비 혼합하였으며, FeCl₂-4H₂O는 용매인 중류수에 용해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혼합하고 사출, 탈지, 소결하였다. 염첨가의 따른 유변화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결합제의 점도를 측정하였다.

제조된 소결체의 밀도를 측정하였고, OM과 SEM과 미세조직을 관찰하였으며, 잔류탄소량은 탄소분석하여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Methylcellulose계 바인더는 사출성형에 적합한 pseudoplastic거동을 보였으며 염첨가시 점도가 감소하였고, 또한 특별한 탈지공정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염첨가시 solid loading을 증가시킬 수 있었으며 사출압을 줄일 수 있었다. 1480°C에서 1시간동안 소결하였을 때 모두 99%이상의 상대밀도를 얻었으며 염첨가시 소결밀도가 향상되었다.